

< 성경칼럼 : 요한복음 스무번째 수정판 >

요한복음 19 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운명하신 내용을 기록했다. 필자가 20 대의 시절에 요한복음 19 장을 읽다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 (요 19 :30) 물론 '떠나셨다' 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 말해 '내어 주셨다' 라고해야 맞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내가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3 일후 부활 하시기전까지 그분의 영혼이 어디 계셨던 것일까? 이것이 정말 궁금했다. 이제 목회 30년을 하고 세월이 흘러 60 이 넘는 나이에 이런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던 때의 궁금한 질문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후 부활전까지 어디 계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있다. (아주 정상적인 질문이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는 베드로 전서 3:19 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누가복음 23 :43 절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다 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 주석을 방대하게 저술한 D.A.Carson 도 이부분에 대해서 S.W.Gandy 의 짤막한 시한편을 소개하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다루며 간략하게 넘어 갔다. 예수님에대한 이런 궁금한 질문에대해서 누구하나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즈음 우리는 나이 들어 간다.

사실 죽음 후의 '중간기 상태' 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이든 지옥이든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

후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나에게도 적용 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 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안에서 죽은 후에야 정확히 알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 (Eternity) 과 연결이 되어 있기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일시적으로 어떤기간 동안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때문이다. '영원' 이란 무엇일까? 시작과 끝이 없는 무안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자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 이다라고 본다. (시 90: 2) 영원은 '순간' 이 점처럼 길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어제 같으시고' (시 90:4)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이 된다. (벧후 3:8)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안에서 신자들은 그 영원을 약속받는다. 물론 어느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자들을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요 5:29) 사실 영원안에는 생명도 그리고 심판도 모두 포함된다. 당신은 어느 영원에 포함 될까? 영원한 생명일까? 영원한 심판일까? 사탄도 잠시 놓이지만 끝내는 세세토록 영원히 멸망해 고통을 받게 된다. (계 20:10)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대해서 갖는 바램과 소망이 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을통해서 새롭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을 이기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란 뜻은 그분에게 원래 사망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다. 사망권세가 이땅에 존재하는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들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나치게 '개인적 소망' 안에 맞추어서 해석하려는 틀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목적이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임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다. (고전 15:54)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당신의 그순간이 언제인지 언제였는지 정확히 말 할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안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다만 아직 사망이 최종적으로 패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전쟁에서 죽음과 시체에대한 경험이 많은 로마 병정들의 판단에 따라서도) (요 19:33-34) 그의 영혼이 떠나셔서 부활하기까지 어디 계셨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라는 선언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 천년이 하루같고 어제 같은데.. 3 일동안 어디 계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낙원에 계시던지 옥에 계시던지 그분이 영원이시다. 영원이 무엇에 제한을 받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을 어떻게 질문하고 표현하고 무엇으로 답 할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그분과 하나이시다 (요 10:30) 창세전에도 함께 계셨고 부활과 심판때에도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하신다. (히 13:8)

요한복음 19 장에서 예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사도요한의 표현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삶과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될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영혼을 내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믿는자들은 모두 지극히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것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낙원' 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거다. 그러니 낙원은 죽은 후에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영원' 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안에 있다.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안에서의 삶이 비록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할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 간다고 해서 영원이 사라질까?

천국이라는 면죄부를 받아 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럭저럭 살다 죽은 후 부활 할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한다. (필자도 그렇게 살아 보고싶다) 개인적 복된 소망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안에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대한 확신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위해 이땅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당신과 내가 이미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원안에 있다는 것에 더욱 확신에 차길 바란다. 아멘..!